

뉴트리, 중국 유고홈쇼핑서 이너뷰티 제품 2019년 새해 첫 방송

[2019-01-09] 이너뷰티 전문기업 뉴트리(대표이사 김도연, 박기범)가 국내 홈쇼핑 완판을 넘어 중국 홈쇼핑 시장에 첫발을 내딛었다.

뉴트리(NEWTREE)는 지난 해 유고홈쇼핑을 통해 에버콜라겐타임의 테스트방송을 진행한 이후 오늘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위한 2019 새해 생방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.

유고홈쇼핑은 중국 전역에 방송하는 초대형 홈쇼핑 채널로 중국 내 취급규모 2위를 기록하고 있다. 유고홈쇼핑은 특히 중국 내 뷰티 제품에 대한 주요 소비자층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어 뉴트리의 이너뷰티 제품 판매에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실제로, 뉴트리는 지난 해 테스트 방송을 통해 중국 시장 내 성공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. 뉴트리는 한국에서 연매출 300억 성공신화를 기록한 에버콜라겐 제품을 중국 소비자 입맛에 맞게 4, 8, 12개월 패키지로 구성해 중국 소비자를 사로잡을 계획이다.

뉴트리 관계자는 “2019년 첫방송을 초대형 홈쇼핑인 유고홈쇼핑에서 진행하게 돼 매출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”며 “특히, 홈쇼핑 판매율이 높은 시간대인 저녁 시간대에 생방송이 편성돼 매출 향상뿐만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”고 말했다.

이어 “홈쇼핑 방송 외에 면세점, 직구 등 유통채널을 확대해 나갈 예정”이라며 “지난해 사상 최초 매출 32조원을 돌파한 중국 최대 행사인 광군제를 대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”고 덧붙였다.

한편, 뉴트리는 이번 생방송 이후 녹화방송도 추가적으로 편성돼 추가 방송을 진행할 예정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.